



스위스재보험, 허리케인 구스타브 및 허리케인 아이크로 인한 순 보험금 지급 누계액을 3억 미국달러로 추산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취리히, 2008년 9월 23일 - 스위스재보험은 오늘 허리케인 구스타브 및 허리케인 아이크로 인한 순 보험금 지급액이 현재 추산치를 토대로 각각 5천만 달러 및 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카보베르데 제도 인근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을 기반으로 소(小) 앤틸레스 열도 주변에서 형성되어 쿠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4등급 허리케인으로 급격하게 발달한 바 있다. 멕시코 만을 빠져나온 후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9월 1일 루이지애나 배리어 아일랜드(barrier islands) 지역에 상륙했다. 이후 허리케인 구스타브는 2등급 허리케인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육지에 상륙한 이후로는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허리케인 구스타브로 인한 피해액 중 보험 처리될 금액은 총 25~40억 미국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위스재보험은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헤지거래 순액 및 재보험 보장금액을 포함한 허리케인 구스타브 관련 자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약 5천만 미국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허리케인 아이크는 카리브 해 연안 지역을 지나 3등급 허리케인으로 9월 8일 쿠바 북부연안에 상륙했다. 이후 허리케인 아이크는 강력한 2등급 허리케인으로서 9월 13일 새벽 텍사스 주 갤버스턴(Galveston) 및 휴스턴(Houston) 지역의 걸프 해 연안을 강타했다. 허리케인 아이크는 인구밀도가 높은 갤버스턴 섬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한편 휴스턴 지역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허리케인 아이크로 인한 피해액 중 보험 처리될 금액은 70~140억 미국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스위스재보험은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헤지거래 순액 및 재보험 보장금액을 포함한 허리케인 아이크 관련 자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약 2억 5천만 미국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의 브라이언 그레이 최고 언더라이팅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금년 자연재해 관련 활동과 더불어 투자시장 실적의 영향으로 연성시장(soft market)으로부터의 탈피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스위스재보험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 견실한 재무구조 및 건전한 자본상황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각종 위험관리 절차 및 통제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편집자 주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쾰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 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a2' 를,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9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